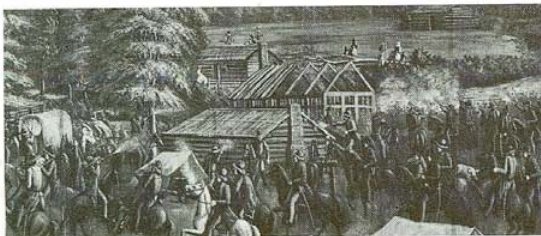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  
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  
을 보라”(마태복음 28 : 6)  
예루살렘, 동산 무덤.

성도의 빛 3  
1979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빛 3  
1979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앤 엘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케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름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매리온 디 행스  
로버트 디 헤일즈  
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코트

너희는 오늘 택하라.....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해의 왕국의 결혼.....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5  
 하루에 아홉갑..... 켄 머스맨..... 8  
 부도덕에 대한 경고의 신호..... 베온 지 스미스..... 11  
 적절한 시기에 내린 비..... 데이빗 칼 댄을슨..... 16  
 대관장님의 동정심..... 페런 엘 크리스틴슨..... 18  
 질의 응답..... 19  
 어느날 아침에 일어난 기적..... 마저리 에스 캐넌..... 21  
 정말 이루어졌읍니다..... 24  
 “네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킴 로더..... 26  
 누구 발자국일까요? ..... 28  
 수리..... 로널드 커비..... 29  
 어린 연사..... 안야 베이트먼..... 30  
 승리와 비극(교회사시리즈)..... 글렌 엠 레너드..... 34  
 우리는 시온에 가기로 했읍니다..... 질 멀베이 테어..... 42  
 준비와 영감..... 폴 에이치 던 장로..... 43  
 지역 지도자 메시지..... 이 남선..... 44  
 지역소식..... 46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64호, 제15권 제3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9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터슨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계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9년  
 제15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인  
 유진 피터슨

# 너희는 오늘 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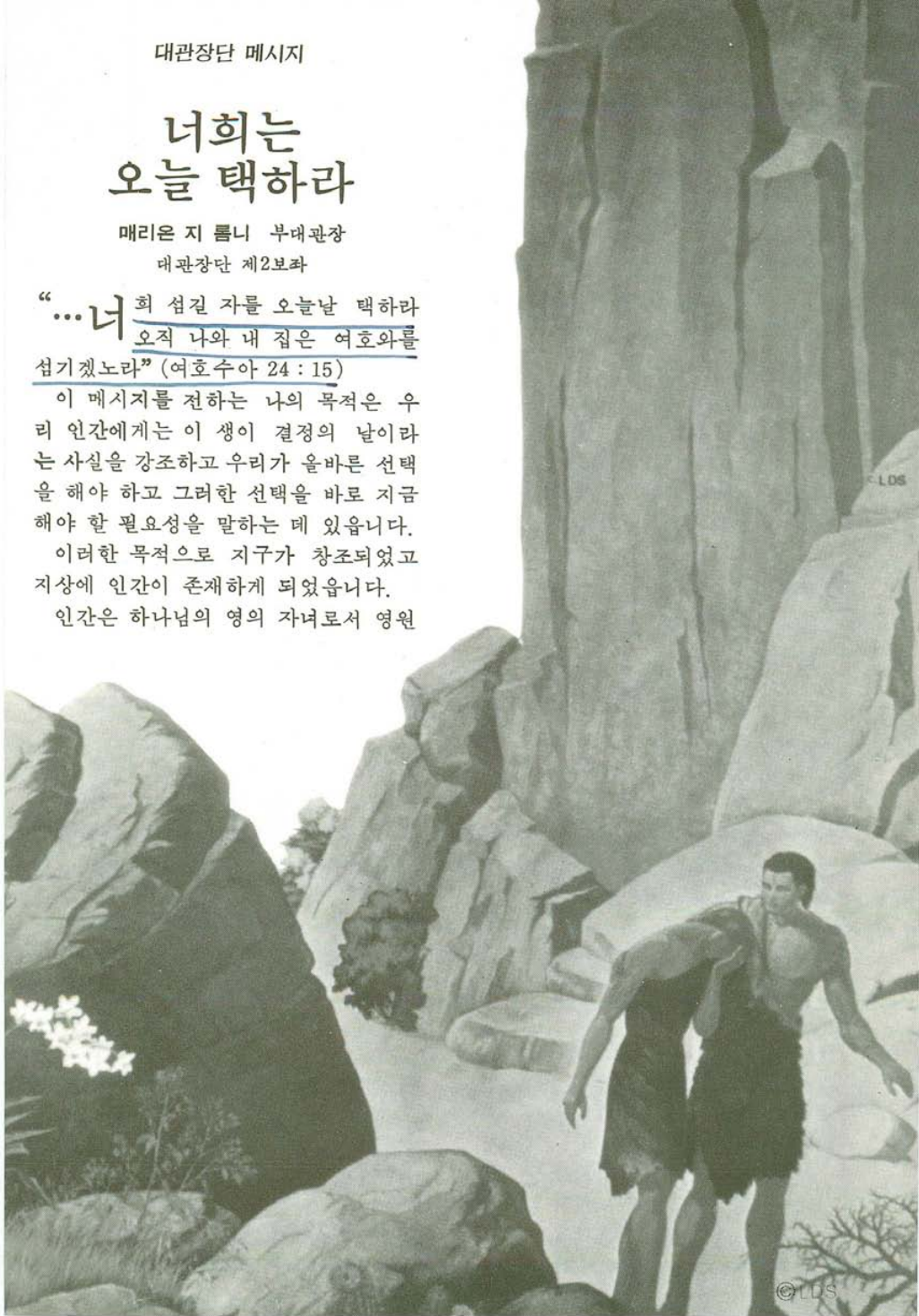
매리온 지 롭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 : 15)

이 메시지를 전하는 나의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 생이 결정의 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그러한 선택을 바로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구가 창조되었고 지상에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영원



©LDS

©LDS

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영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필멸의 육체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살게 될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자유의 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두 가지의 강력한 세력, 즉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세력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

“또한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오오느니라.”(교성 84 : 46-47)

또 한편으로는 책임을 질 연령에 이른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따르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두 세력의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 지금도 심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아담과 이브는 하늘 사자들에게서 복음을 배웠으며,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주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사탄이 저들에게 와서 이르되, 이 말을 믿지 말라, 하니 저들이 믿지 않게 되었으며 도리어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그때로부터 인간은 육체와 육욕과 악마를 쫓는 자가 되었더라.”(모세서 5 : 13)

이와 같은 상태는 약 6천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각 복음의 경문의 시대마다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

으며, 그 결과 배도와 방탕과 암흑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각 경문의 시대에는 신뢰,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참된 속성이 새롭게 계시되었습니다. 또한 기본 원리와 의식도 다시 계시되었을 뿐 아니라 강조되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는 생활의 중요성도 강조되어 왔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주어지는 축복이 계시되었고 불순종의 결과도 항상 예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은 항상 성취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사탄의 유혹과 세력에 한번도 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교성 112 : 22)을 계속 들은 백성은 바로 에녹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승천했으며, 지금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루게 될 또 다른 사회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 처음의 16세기 반 동안 지상의 잔류민들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에녹, 므두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와 같은 예언자들로부터 복음을 배웠고, 순종함으로써 오는 축복에 관한 예언을 들었으며, 불순종의 결과인 멸망에 대한 경고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을 배척하고 “믿지 말라.”(모세서 5 : 13)는 사탄의 권고에 따른 자들은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 남게 하고 모든 사람을 죽게 한 대홍수의 원인이 된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잘못 내린 결정의 결과에 관한 이와 비슷한 예는 야벳 민족의 기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야벳 민족은 바벨탑 건축 후 약 2천년간 미대륙에 살았습니다.

바벨탑이 건축되던 당시에 일어난 언어의 혼란 상태에서 주님은 한 무리의 백성을 구해 내시어 미대륙으로 인도하

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땅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를진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큰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이 땅 위에 없을지라...” (이더 1:43) 이같이 그들은 큰 나라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은 주님을 잊고 그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해짐에 따라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리라는 것을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기를 거절하고 욕욕을 충족시키는 길을 따를 것을 선택하였으며 마침내 동족상쟁의 전쟁이 일어나 그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리하이 이주민의 후손인 니파이인들이 살았습니다. 리하이 이주민은 주님이 약 주전 600년경에 미대륙으로 인도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 6세기 동안 그들은 예언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오는 축복과 그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멸망에 관한 예언을 되풀이 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서기 421년경 그들의 죄악이 극심해졌으며, 따라서 그들은 야벳 민족이 당한 것과 같은 운명을 그대로 겪고 말았습니다.

아몽든 천년 동안 그들은 의로움과 사랑함의 양단에서 갈피를 못잡았습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땅에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베루신 성역과 미대륙의 그들에게 그의 탄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알려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후에 그들을 방문하시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언자 니파이는 주전 592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땅 (미대륙) 위에 암흑과...천둥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여러 성읍이 땅에 묻히며 더러는 “불에 타며”(니일 12:4),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큰 파괴가 있는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니일 12:6 참조)

모든 예언은 주님이 정해 놓으신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자 아모는 그 진리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은 이 예언이 참된 것임을 입증해 줍니다.

나는 이제 내가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유의하고 그것에 의미를 더해 주기 위해 그러한 사건을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는 복천년이 이르기 전의 시대 곧 복음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인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는 과거의 경륜의 시대처럼 배도와 복음의 상실로 끝나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는 창세 이래 모든 경륜의 시대에 예언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평화로운 천년 통치의 시작으로 끝날 것입니다.

“...위대한 복천년이 임할 것임이라. 사탄은 결박당할 것이요...”(교리와 성약 43:30-31)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만군과 함께 하늘에서 나타나 지상에서 천년 동안 인간과 더불어 의롭

게 거하리니 악인이 견디지 못할”(교성 29 : 11) 것입니다.

니파이는 우리의 시대를 시현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능력을 잃을 날이 속히 이르리라 하셨으니, 교만하고 완악한 모든 백성들이 그 루터기처럼 불살라질 날이 반드시 이르리라.”

“이는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모든 인간에게 쏟아질 때가 임박하였음이며, 악인이 의인을 멸함을 주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음이라.”

“그러므로 주님은 주의 권세로 의를 지키시나니, 가득하신 진노로 임하시는 날에라도 원수들은 불에 타서 패망하나 의로운 자는 구할 것이며, 의로운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불로 치시는 날에라도 의인은 구원받으리라고 선지자가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일이 속히 이르리라. 피와 불과 연기의 안개가 반드시 이르러 지면을 덮어야 하리라. 저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하여 마음을 강퍽하게 가질진대,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 이 날이 이르리라.

“보라 의인은 진멸되지 아니하리니,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이 모두 버림을 당할 날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 (니파이일서 22 : 15-19)

우리는 다가올 절정의 때가 언제인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지구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차 있음을 알며, 십계명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부하며, 부정직과 부도덕과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일과 심지어는 살

인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 데 거하여 모든 사람을 굽어 보시는 이의 음성이 말하노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 지어다...”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이우심이라.

“또한 주께서 진노하시고 주의 겸이 하늘에 셋기웠은즉 땅의 주민 위에 떨어지고,

“주의 팔이 나타나리니,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대 바빌론 처럼 파멸하리라.”(교리와 성약 1 : 1, 12-16)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이 멸망할 때 살아 남으려면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앰울레크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앨 34 : 32)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모세서 6 : 33)

✱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로 결속되고 똑같은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처지에 있도록 똑같은 영원한 진리를 염두에 두고 나는 먼저 서너가지의 계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중대한 교리를 다룰 경우 똑같은 느낌과 자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의 충만한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 이 시험의 지상 생활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마음속으로 더욱 확고히 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주제로서 “교회에 관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계시인 교리와 성약 42편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 즉 “은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와의 결합하지 말라.”(교성 42:22)를 택합니

다. 그리고 이 계시의 정신에 따라 나는 원래 결혼에 관해 말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구약 성서 룻기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룻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약간 변경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물며) 만일 내가 죽는 일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 1:16-17)



## 해의 왕국의 결혼

브르스 알 맥كم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또한 우리의 경륜의 시대에 결혼에 관한 교리와 성약 49편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로 나는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고 들이 한 몸을 이물이 마땅하니,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창조에 따라 인간의 수로 가득 채우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9 : 15-17)

우리가 말일성도로서 결혼에 관해 이야기할 때 거룩한 해의 왕국의 반차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큰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평온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가능성을 가진 가족 단위, 즉 남편과 아내와 영원토록 그러한 관계를 갖고 생활하며 어머니와 딸과 아버지와 아들이 결코 헤어지지 않게 해주는 영원한 유대로 결속되어 있는 가족 단위를 이루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보다 더 중요하고, 지상과 하늘에 존재하는 어떠한 조직보다 더 중요한 조직 즉 승영과 영생을 얻게 하는 조직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영생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생활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에 대해 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우리는 내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진실로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요 17 : 3 참조)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관한 지식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하는 지고의 승영을 얻기 위해 점점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영생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활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관해 말할 때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승영에 이르셨으며 지존하신 분, 즉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신”(교성 130 : 22) 개체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 곧 모든 인간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았으며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대표와 대리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 그의 권고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전세에서 알았습니다. 지금은 장막이 드리워져 있으므로 우리는 그 당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되게 해주는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영의 자녀인 우리를 낳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선택하는 힘과 능력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도록 허락하시고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 능력, 적성 그리고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구원의 계획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라 일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의 영의 자녀인 우리를 전세에서



영으로 존재하던 예지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높은 승영의 상태로 데려 가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율법, 권세, 권리, 모든 경험, 모든 은사 그리고 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영들과 영광 중에 있음을 아시고 영들이 발전하고 진보하여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율법을 제정하여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율법에는 이 지구의 창조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율법에는 우리가 이 시험의 상태에 시련과 시험을 받으며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필멸의 육체를 입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기회 즉 영의 일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결혼 관계를 맺는 기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세에서부터 이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에 살면서 전세에서 경험한 모든 삶을 다시 살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내세에 거할 처소와 왕국을 위한 최후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활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는 가족 단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곧 아버지의 충만하심과 영광(교성 76:56 참조),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힘, 권세, 통치권 그리고 승영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상태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전능하신 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거나 권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에 창조되어 있는 모든 세계와 천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성의 모든 생명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주는 영화로운 무한한 예지에 대한 개념을 갖기 시작하며 더우기 아버지의 충만한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부모와 같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전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회생을 기초로 삼고 자신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우리가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키고 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하면 그와 같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계획인 복음을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의 회생을 바치심으로써 아버지의 계획의 모든 조건이 효력을 미칠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양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와 하늘의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창조주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주이십니다. 그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에 임하게 된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육체적 사망으로부터의 구속은 우리 각자에게 불사불멸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 22) 산 자는 모두 불사불멸의 상태로 부활하게 되며, 그렇게 부활한 후에는 그의 업적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며, 예비된 왕국에서 거할 처소를 지명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사불멸의 상태로 살아난 후에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그를 올바르게 충분히 존중할 수 있을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조건으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은 창조였고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사업은 구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사업,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놓으시고 이룩하신 기초 위에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은 내가 말하는 영광을 물려받기 위해 우리에게 지명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율법대로 생활하며, 순결하고, 침례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며, 성신의 권세로 새 사람이 되고, 진리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뜻으로 이야기하는 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적하는 영원한 결혼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특정한 일을 위한 기초인 것입니다. \*

## 하루에 아홉갑 우리는 어떻게 금연할 수 있었나?

잭 머스맨

나는 1964년에 우리를 방문한 두 명의 훌륭한 선교사에게 참으로 우리가 그들의 메시지를 믿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금연하기를 바랍니다. 담배 없이 지내는 단 한 시간의 괴로움이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구원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빌은 하루에 여섯 갑을 피웠고 나는 세 갑을 피웠습니다. 하루에 아홉 갑의 담배를 태우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96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조금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1975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이 나보다 두 배나 피웠지만 나는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폐결핵을 유발한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 여러 사람이 금연하도록 도와 준 의사를 찾아가서 나를 위하여 계획을 세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호원이 나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을 때 그는 나의 가슴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머스맨 부인, 지금 담배를 갖고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두 갑 있습니다.”라고 나는 기가 죽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고개를 돌리고는 정색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담배를 이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의사로서 부인의 폐가 더 이상 담배에 전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금연 계획을 세우려고 왔는데요.”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계획입니다.” 그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더욱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부인께서 남편과 자녀에 관한 모든 것을 염려하신다면 단 한 개의 담배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나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금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나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빌이 사업차 출장을 가고 집에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이는 내가 좀 생각해 볼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닿자 나는 식탁에 앉아 고민하면서 저절로 담배에 불을 붙

였습니다. 마치 무슨 신호인 것처럼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빌이 뉴욕에서 전화를 건 것입니다.

“여보, 의사에게 전화했으. 그래서 나는…”이라고 말하다가 내가 숨을 내쉬는 것을 듣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군!” 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여보, 담배를 피우다니, 담배를!” 나는 빈정거리는 어조로 흉내를 냈습니다. “당신 몹시 화났군요, 그렇지요? 당신에게 금연하라고 말하는 의사는 없으니까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집에 돌아가겠오. 우리 모두 담배를 버리고 24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나는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편이 그 다음날 어떻게 문을 열고 그의 팔을 내밀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금연하려고 하고 있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오!” 그 포옹은 진실로 축하의 뜻이었으며 그 순간의 열광은 그만큼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다음 주는 어렵지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생기를 잃고 넋을 잃은 상태로 자꾸 떨리는 손을 가누며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신경질적이 되고 예민해졌으며 여러 번 포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꺾이지 않고 이 반혼수상태의 날을 견디어냈으며 내가 그

를 바라보는 동안 용기가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리는 격연 습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으며 나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10:27)는 사실에 그 공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되었다고 느낀 것...즉 담배의 속박을 끊은 것...은 거의 2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며 충분한 보상이지만 더 많은 축복이 따랐습니다. 2년 동안 우리 부부 사이의 사랑과 감사 및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감사는 우리가 그때까지 알았던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더 강화되었으며 우리는 “함께” 자랐습니다. 이 건진 하고 한결같은 마음은 우리의 결혼에 대한 가장 위대한 축복 중의 하나였으며, 우리는 더할 나위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금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차와 커피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런 것이 우리의 습관 중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된 것은 또한 우리가 술마시는 것을 절제하여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을 정복함으로써 얻은 만족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한 두 어린 자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은사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인 빌과 앤이 결코 담배나 술이나 마약에 유혹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와 그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의 그의 친구들과는 달랐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주 달랐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신앙과 생활 방식을 함께 나누려는 친구와 동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들이 점점 나이를 먹음에 따라 그들의 장래에 행복에 대한 염려가 점점 더 깊어져서 나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자주 기도했습니다. 결국 1973년 초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즉 표적을 주실 것을 간구하며 3일을 보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초인 종이 울렸고 두 명의 물론 선교사가 우리의 문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반가이 맞이하여 집안으로 모셨을 때 그들은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1975년 아름다운 5월의 어느 날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더 많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변화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말 일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을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를 영원한 가족으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곤 합니다. \*

두 자녀의 어머니인 켄 머스맨 자매는 퍼시픽 캘리포니아 스테이크 벌링겐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문화의 경수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 부도덕에 대한 경고의 신호

배은 지 스미스



해 월드 비 리 대관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의 연차 대회에서 솔직히 말씀 하시면서 교회 형제들에게 “우리가 순결의 법을 지킬 것을 다시 결심”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신전 결혼 인봉을 취소하기 위한 “추천서의 쇄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단호하게 “그 중의 많은 것이 살인 다음가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 간음의 죄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엔사인, 1974년 1월호, 101페이지 참조)

신전에서 결혼하였으나 간음으로 인해 인봉 서약을 깨뜨리고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도덕은 부지불식간에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간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과 태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음의 각 단계는 짧으며 각 단계는 쉽게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시작하면 그만 두기 어려운 것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자들은 부도덕에 대한 “경고의 신호” 즉 모든 남편과 부인들이 알아야 하며 피해야 하는 신호의 많은 것들을 인식하도록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윌라드라고 부릅시다—이 자신의 느낌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상담하러 왔는데 그것은 다른 여자에 대해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윌마와 신전에서 결혼했으며, “홀륭한” 결혼을 한 것으로 보였으나 점점 결혼에 싫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흥분된 기쁨이 적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는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그들의 대화는 제한되어 있었고 의미없는 것이었으며, 윌마는 남편에 대하여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사무실에서 여인들과 희롱거리며 십지어는 장난처럼 한 여성과 키스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자 그는 자신의 신전 성약에 배우 위험한 신호가 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윌라드는 현대의 결혼을 가끔 파경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허황된 사고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번째는 “내가 신전에서 결혼하면 결혼은 저절로 잘 될 거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성장하고 변하는 두 사람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이며 결혼이 밀접하고 의미있는 것이 되려면 그러한 상호 관계를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전 결혼이 자동적으로 해의 왕국의 결혼이나 십지어는 행복한 결혼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두번째는 “결혼이 성공적이지 아니라면 나는 다시 시작해야겠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내리면 결혼은 계속적인 과정이지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결혼이 어떤 점에서 다른 점에서 보다 더 성공적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의 모든 면에서 순간적인 성공을 원하고 기대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완전하지 못하면 실망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결혼 상대를 잘못 골랐어.” 이런 태도가 결혼 동반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돌리게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세번째는 “나의 배우자만을 사랑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나의 배우자와 관계는 다른 사람과 관계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모든 사람의 과제는 한 사람, 즉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여러 경우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게 됩니다. 이런 각 경우는 또한 다른 사람과 정서적인 관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때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 서약에 대하여 분명해야 하며 결혼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실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성실은 부도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정입니다. 긍정적인 자질인 성실은 남편과 부인 사이의 충성과 충실과 헌신의 정도에 따라 측정됩니다. 부정적인 자질인 부도덕은 불충분한 충성과 충실의 느낌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합당하지 않은 관계를 갖는 모든 행위는 성실성을 침식하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결합된 두 사람의 영혼은 그들의 느낌을, 말로써 표현하고 상호 존경심을 유지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우정과 사랑과 충성심을 증진시켜야만 영적인 단합과 세상적인 단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주이나 실망에 의해서 성실성이 어떻게 침식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두 가



지 예가 있습니다.

1. 밀드레드와 마빈의 결혼은 근본적으로 매우 원만했습니다. 매일 밀드레드는 가까운 친구인 헨리와 함께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밀드레드는 서로의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좋아했는데, 이는 마빈이 아주 과묵한 사람으로서 그의 생각과 느낌을 가족들과 잘 나누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츰 밀드레드와 헨리는 집에 오는 길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길게 갖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좀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길가에 차를 세워 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마빈이 이런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 밀드레드의 성실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이 파경에서 벗어나는 데 수 개월이 걸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출퇴근시에 함께 갈 어떤 다른 사람을 하나 더 찾아 내든지 서로의 출근 시간에 교통수단을 바꿨다면 이런 고민거리는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무 일도 없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불안한 느낌이 있으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성실에서 부도덕으로 흐르는 미묘한 변화는 낮의 빛으로부터 어둠으로 차츰 그늘이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밀드레드와 헨리가 서로 동반함으로써 차츰 증가된 즐거움은 양자의 결혼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2. 엘리스와 알빈이 결혼한 후에도 알빈은 그의 독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사냥을 가며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빈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엘리스는

집에서 혼자 실의에 잠겨 있었습니다. 알빈은 자신이 승리한 것이나 경험한 것을 엘리스가 아닌 그의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화의 빈곤에서 오는 첫번째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스도 알빈처럼 알빈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은 친절한 옆집 사람으로서 엘리스는 그의 관심으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곧 깊어졌습니다.

엘리스와 알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목표에 대한 평가와 서로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둘다 각자의 정서적인 필요 사항의 대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점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의 모든 필요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서는 안되지만 결혼은 정서적으로 배마른 분위기에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의 일반적 결과는 신뢰심의 부족, 해명하지 않은 의박에 대한 의혹, 난폭한 행동을 낳게 하는 불안과 의문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혼란, 성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죄의식 그리고 자신의 직장의 업무와 자녀와의 대화와 정상적인 책임을 다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서적인 혼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부모의 부도덕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관계의 유형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며 진짜 마음속 느낌을 숨기려는 부모의 의도가 그대로 성공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가 열살이 넘게 되면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

끼며 책임을 느끼고 제정신을 잃거나 가정에서 긍정적인 느낌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 다닐 연령에 이르지 못한 자녀들도 부모들 사이에 애정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정도의 부도덕이든지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며 어린이 자신과, 부모에 대한 느낌에 영향을 미치며 사랑과 결혼관에 대해서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들의 부도덕은 수년 후에 그 어린이의 결혼상대자로서 역할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부도덕도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쉬우며 최선의 예방책은 훌륭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영원한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굳건한 서약을 맺는 신전결혼은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아니라 신성하게 제정된 결혼 제도에 대해 헌신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충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충실함은 동반자에 대한 것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충실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는 결혼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동반자에게 굳게 "결합"하기로 서약하고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않는 것은 결혼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성실성을 키워 주는 다른 요소는 대화에 있어서의 정직함입니다. 자신이나 동반자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기꺼이 솔직하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사상과 매일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정서적으로 친밀해지며 그런 느낌을 통하여 서로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불만족, 권태 및 짜증 등의 느낌은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 질문은 배우자로서의 성실성을 점검하는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중의 어느 것이라도 "아니요"가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결혼을 평가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자와 함께 토론해야 합니다.

1. 당신과 배우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혹은 어느 한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험을 서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2. 당신은 반려자에게 마음 속의 느낌이나 혹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는지 말해줍니까?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난 의외게 느껴진다"든지 혹은 기타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3. 당신은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개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서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관심이나 가치에 대한 불일치를 토론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4. 당신은 서로 상호 신뢰와 존경을 나누니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합니까? 당신은 배우자가 가려 여러분에게 불쾌한 것을 말할지라도 당신에게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5. 당신은 느낌이나 생각이나 경험을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기회를 틈타는" 일이 없이 솔직하게 나눌 수 있습니까?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도 역시 결혼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예"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 배우자와 토론하고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감독이나 전문적인 상담자를 찾으십시오.

1. 당신은 결혼에 싫증을 느낍니까? 가끔 배우자의 친구들을 싫어합니까?



2. 당신은 자주 결혼, 가족 혹은 서로에 대한 중요한 요소 중 많은 것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에 대해 불평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배우자를 비판합니까?

3. 당신은 가끔 배우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느낌을 갖습니까? 혹은 자신이 오해받거나 등한시되거나 인정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까?

4. 당신은 자주 배우자가 아닌 남자 혹은 여자와 단둘이 앉아있는 일이 있습니까?

5. 당신은 결혼 상대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강력하게 마음이 끌리는 일이 있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과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 연정을 품게되는 것은 성실성에 대한 적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은 현재 결혼 생활의 상태에 대하여 배우자와 솔직하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부 모두가 보다 효과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법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필요성과 기타의 것에 대하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만약 이런 노력이 결혼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감독과 약속을 해서 접견하십시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 결혼 생활을 향상시

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다음 생애에서는 자동적으로 결혼 생활의 결점이 치유될 것으로 생각하여 결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이 생애에서 불만족스러운 결혼을 향상시키지 않고 그것을 인내함으로써 다음에 올 생을 위한 우리의 영적인 준비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은 극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주어진 계명은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성 59:6)는 것입니다. 불성실과 성실은 서로 배타적인 것입니다. 성실, 충실, 신뢰 및 함께 나누는 것이 있는 곳에 불성실이 자랄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성실한 과정의 주된 면은 개인적인 헌신입니다. 즉 배우자, 결혼 제도 및 개인적인 관계로서의 결혼, 복음이상과 표준 및 함께 영원히 발전함에 대한 헌신입니다.

“모든 것은 주시하고 연구하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혼은 무심하게 다루거나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등한시한 모든 것은 과거의 상태나 현재의 상태로 머물지 않을 것이며 나빠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의를 기울이고 돌보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결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리차드 엘 이반스 인용집, 솔트레이크시티, 퍼브리셔스 프레스 1971년, 16페이지) \*

베온 지 스미스는 사회사업 교수이며 유타 대학의 결혼 및 가족 상담 책임자이다.



# 적절한 시기에 내린 비

데이빗 칼 댄을슨

**내**가 지내온 생을 돌이켜볼 때 자연 도에 대한 인상은 그 해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내가 결혼한 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 목장의 광을 지은 해 등이 생각나는 데 저에게 1977년은 기적의 해입니다.

나는 유타주 캐쉬 계곡에 사는 농부입니다. 우리의 생사는 날씨에 달려있는데 1977년은 한발의 해였습니다. 이 한발은 눈이 오지 않은 1976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같이 높은 산 계곡에 건조한 가을이란 드문 것이어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밭을 갈고 부서진 울타리를 수리하고 밭을 평평하게 고르고 심지어는 돌벥이를 끌라내기도 했습니다.

일월의 마지막까지도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은 벌거벗고 회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눈송이라도 녹지 않고 여전히 땅에 흘날리고 있었습니다.

1월 중에 로간 지역에 있는 스테이크 부장님께서 우리의 지역 대표인 엠에이 자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특별 금식을 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1월 23일 일요일에 하이럼 유타 스테이크의 회

원들은 처음으로 그들의 새로운 건물에 모였습니다. 자 형제님께서 금식에 대한 계획의 개요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테이크 부장님 가스 리 형제님은 1월 26일 오후 6시부터 금식을 시작하여 27일에 금식기도 모임을 갖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금식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원들의 절반 이상(노인, 가족, 청소년, 대학생 등)이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리 대관장님께서 우리 청중을 인도하여 적기에 필요한 비를 내려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비나 눈은 그날 밤에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2월은 따뜻했으며 남아 있던 작은 눈송이들이 녹았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대답은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으나 우리의 성급함으로 인하여 가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월 중순에 주지사가 유타 주를 한해

재해지구(구제법 적용 지구)로 선포했습니다. 모든 경제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겨울 휴양지가 문을 열지 못했으며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제한된 능력 안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공 단체에서는 시민들이 물을 아껴서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몰랐던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에 의지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찌라.”(베위기 26 : 3-4)

3월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몇 번 반가운 눈이 왔는데 3월로써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난 주는 일기가 맑고 따뜻했습니다. 땅은 급격히 말랐습니다. 우리는 밭을 갈아 딱딱했던 흙덩이를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훌륭한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3월 21일과 22일에 55,500평의 밭에 보리 씨앗을 뿌렸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복지 농장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다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이 지나가자 사실상 가물었습니다. 3개월마다 갖는 스테이크 대회가 다가왔으며 리스테이크부장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농작물을 심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인 포큐파인 댐 저수지의 수위는 반으로 줄었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이미 정지되었습니다. 삼월에 내린 눈은 단지 15센티미터에서 20센티미터밖에 안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조 농법에 의한 수확은 전부 다 손해를 볼 것이며 관개 시설이 되어 있는 땅에서는 적어도 수확의 절반 이상의 손해가 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지역 관개 위원회에서 여름에 물을 배급할 계획을 세웠습

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공 모임에서나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5월 5일에 비로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매일 새싹 위에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계곡에서 기록된 역사 중에서는 5월이 가장 비가 많은 달이 되었으며 이 계곡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전조를 거두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해는 한발이 있었던 해로 설명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인에게 만나가 그날 그날 필요한 것만큼 내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무초인 알파파가 다 자람에 따라 우리는 다른 작물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확은 평년작 이상이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끝남에 따라 우리의 땅은 수확으로 가득찼습니다. 스테이크 복지 농장은 전혀없이 최고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농장도 그랬습니다. 광과 곡물 창고는 가득 찼고 나의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속한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부장의 요청에 따라 9월 22일에 다시 대회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주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약 절반 가량의 스테이크 회원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나는 화평을 느끼면서 그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험은 나의 신앙과 간증을 강화시켰으며 나는 결코 기적을 다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잘 알고 있는 다음 성구의 뜻을 깊이 알았습니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9 : 21)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문득 나는 자동차의 유리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 대관장님의 동정심

페런 엘 크리스텐슨

아직 캘리포니아 주의 캐들리너 섬 뒤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진홍색 해를 정확하게 묘사한 예술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해안선은 해변에 부딪치는 노도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진동하며 파도는 흰 물거품을 내며 춤을 추고 겨울의 광폭한 경치를 연출시킵니다.

그러나 날씨가 풀려서 따뜻해지면 바다는 남색에서 청록색으로 또 에메랄드 빛을 띤 녹색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하늘과 조화를 이룹니다. 진기한 새들이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역풍을 맞아 균형을 잡고 페리칸 새는 먹이를 찾아 물거품이 이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고 회색 빛의 고래는 꼬리를 휘젓거나 하늘로 물을 뿜어 올리고 돌고래는 술래잡기하는 어린이들처럼 물러다니며 물개는 바람 소리를 향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광경입니다. 또한 하루도 똑같이 보이는 날이 없습니다.

이 광경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과 자매님이 남쪽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는 동안에 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즐기고 감상하는 풍경이었습니다. 가끔 그들은 손을 잡고 변화하는 전경에도 취되어 몇 시간씩이고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하루는 대관장님과 그 자매님을 모시고 거기를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밀물 위로 천천히 움직이며 허우적거리는 거대한 바다 사자를 봤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 사자가 숨쉬기 위하여 헐떡거리다가 결국에는 기진맥진해서 해변에 쓰러질 때 옆구리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읍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 일에 큰 관심을 보이며 나에게 이 거대한 바다 사자는 해적 바다 사자들로부터 이루어진 약탈자의 무리들로부터 자신의 동료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맹렬히 투쟁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을 완전히 격퇴시키고 나서 이 바다 사자는 상처가 아물고 죽을 경우에는 평화롭게 죽기 위하여 후미진 피난처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을 모두 알고 계시니까요? 그분은 아주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았으며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안에 따라 더 가까이 보기 위하여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끝으로 걸어 갔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싸움은 사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바다 사자는 옆구리와 등의 상처로부터 많은 피를 흘

리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숨쉬는 것이 외는 움직이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초조해져서 나는 돌을 집어 들어 그 동물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쳐 가게 할 생각으로 그 동물에게 던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돌을 던지려고 팔을 휘로 제쳤을 때 맥케이 대관장님이 저지하기 위하여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으나 나는 그 분의 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친절하라는 강력하고 조용한 권고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해변까지 걸어 내려가서 이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동물을 도와 주었습니다. 나는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그 바다 사자의 고통과 아픔을 달래 주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그 짐승을 겁내지 않으셨고 그 바다 사자는 맥케이 대관장님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멎고 그 바다 사자가 충분히 쉬었을 때 다시 물속으로 미끄러져서 헤엄쳐 나갔습니다.

내가 맥케이 대관장님의 자비와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감수성을 회상하노라면 다음 성구가 생각납니다. “나 하나님은 큰 고래와 물이 번성케 하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날개를 가진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니라. 나 하나님이 보니 모든 것이 좋았더라.”(모세서 2:21) 그 기억할 만한 날에 그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한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모든 땅”(모 2:26참조)을 다스릴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통치권을 친절과 사랑가운데 행사합시다. \*

## 질의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제랄드 이 존즈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신학 연구원 책임자

만물의 영원한 계획에서 볼 때 동물은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까?

**자**연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 깊은 찬사와 극진히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교회 대관장과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와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로 구성된 테저렛 주일학교 본부 회장단에서는 1918년 4월호 청소년 인스트라터 사설에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으며 “사람은 인간의 관심에서 동떨어져서 배우는 것보다 모든 생명에 대한 동정적인 관계에서 쉽게 더 많은 것을 배운다.”(183페이지)는 내용의 글을 실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동물의 헌신은 실질적인 것인 동시에 감동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기사를 보면 불타고 있는 자동차의 창문유리를 깨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속에 있는 어린 소녀를 안전하게 끌어냄으로써 생명을 구해준 개의

용감성에 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계획에 있어서 동물의 위치에 관하여 수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동물도 영을 갖고 있으며 부활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동물의 영원한 상태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교리와 성약 77편에 나와 있습니다.

동물은 어떤 단계의 영광에 가게 됩니까? 경전에서는 해의 왕국에 있는 동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다른 왕국에 가는지 아닌지는 추측에 속하는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가 세 영광의 단계에 동물이 모두 있게 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958년 1월호 임프르브먼트 이라, 16—17페이지)

동물은 그들의 율법의 순종에 따라 심판받고 부활합니까?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의 말씀에 의하면 동물에게는 양심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 : 그들의 운명과 기원, 메저렛 출판사, 1954년 204—205페이지)

동물은 내세에서 주인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 계시된 말씀은 없습니다. 목장주나 농부들은 그가 일생 동안에 소유했던 모든 가족을 반드시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정서적으로 맺어진 것은 존중될 수 있을 것이며 가족의 애완 동물은 부활할 때 주인에게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자신이 총애하는 말을 영원히 소유할 것을 기대했다고 울슨 에프 윌트니 장로는 기록했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27년 8월, 855페이지)

인간과 동물사이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물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그의 청지기 직분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예언자들은 인간이 동물에 다루는데 책임을 지며 동물에 관하여 정의와 자비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엘마는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엘마서 34 : 20, 25) 교회의 역사를 보면 동물이 기름 축복을 받아 병고침을 받은 예가 수없이 많습니 다. 가장 잘 알려진 일로써 메리 필딩 스미스의 소들은 병에 걸렸으나 기름 축복을 받아 후에 교회 대관장이 된 조셉 에프 스미스를 포함한 그녀의 개척자 가족을 유타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프레스턴 니블리, 교회 대관장, 메저렛북사, 1959, 234페이지)

예언자들이 자주 이 세상에서 동물을 합당하게 대우할 인간의 책임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영원한 세계에서의 동물의 상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음대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도록 합당하게 되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서두에 인용했던 사실을 더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은 창조주를 경배하며 그분의 피조물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은 사람이 더 나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높여 줍니다.” (청소년 인스트라터, 1918년 4월 182페이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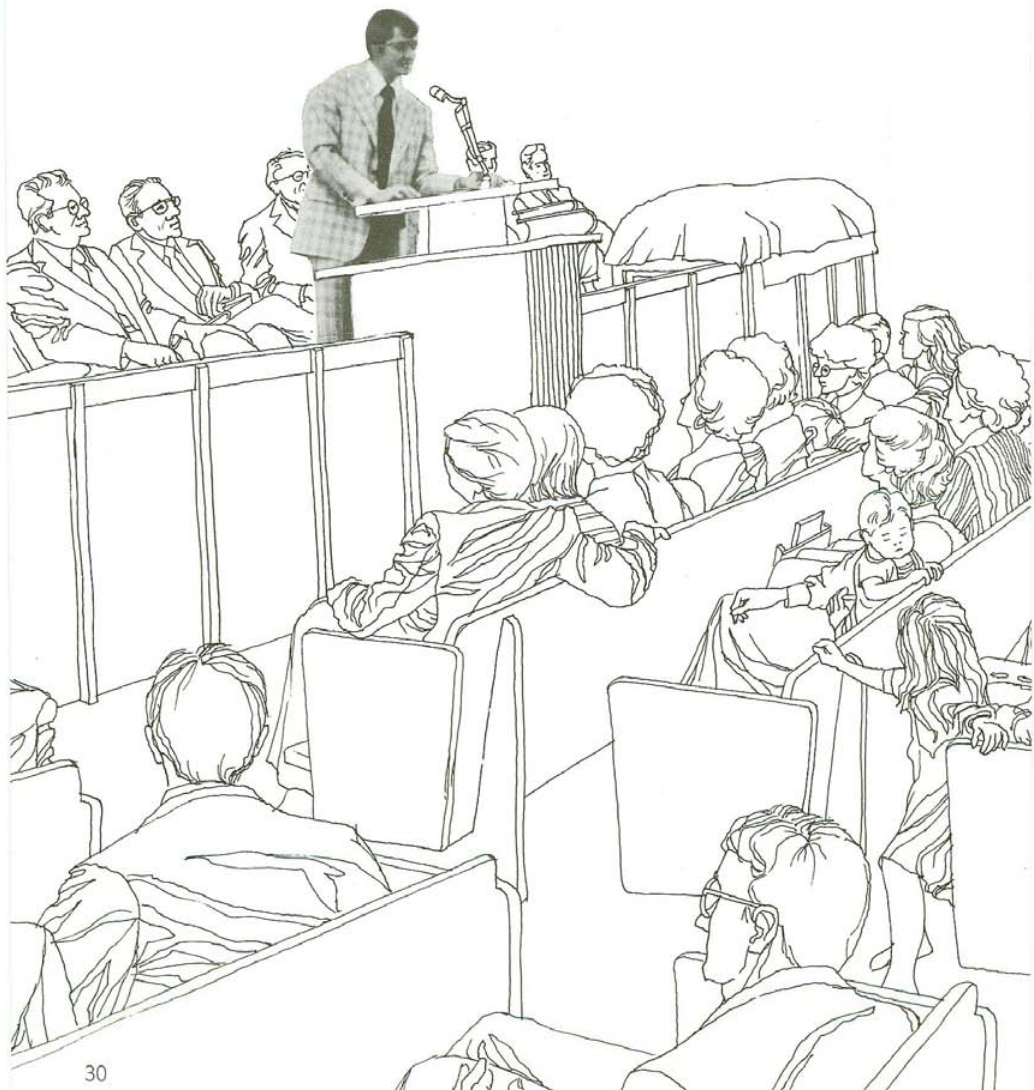
# 어린 연사

안야 베이트먼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뿜어라” 그의 어머니는 교회로 가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때 그는 다시 숨을 들이키고 서서히 내뿜으려 했으나 급히 내뿜고 말았다.

“왜 내가 이렇게 겁을 먹고 있지, 이래서는 안돼,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해”

그는 물몬경을 만지작거리다가 낡은 종이 한장을 꺼내서 구겨진 곳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펼쳤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것은 시작하는데 매우 독창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그는 말씀이 적힌 종이 조각을 접어서 그의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어 물몬경에 도로 집어 넣었다.

그리고는 다시 손수건을 꺼내어 손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왜 이 손들이 이렇게 떨리는 걸까? 그는 몸과 음성이 떨리는 것을 억제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감독님이 나에게 말씀하라고 요청했을 때 나는...” 그것은 다소 우둔한 것같이 들렸다. 왜 그는 보다 훌륭한 첫마디를 생각하지 못할까?

그가 여러사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 이래로 그는 언제나 말씀할 기회를 피해왔다. 그의 마지막 경험에 대한 추억이 세월과 더불어 희미해졌으며 그는 사람들 앞에 다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승낙했다. 그 당시에 말씀했던 기억이 다시 새로와 지는 것 같았다. 그는 거기서는 피로운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도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때를 회상해보면, 그가 수많은 청중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가 기억해두었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그 말씀이 중발해버린 것일까? 그러나 나는 그날에 메모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날은 완전히 실패였어. 나는 자신의 기억력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메모를 갖고 가지 않았어, 아버지께서도 결코 메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 나는 메모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만일 문제가 없다면 왜 그는 그렇게 두려워할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다.

개최 선언이 끝나자 그의 부친은 책크로부터 약간 떨어진 좌석에 앉아 그의 목소리를 다들었다. 책크는 그의 부

친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과 꼭 닮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와 닮은 것은 그것뿐이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매우 유능한 연사다.” 그의 부친의 말씀에는 언제나 경험과 이야기가 풍부하게 들어있었다. “내가 준비한 말씀에는 단 하나의 이야기도 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이 출제 될 거야 차라리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걸”

그의 부친은 책크의 시선을 응시하고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책크도 아버지께 미소를 보내며 그의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흥분을 갈아앉히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의 메모지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만일 내가 아버지를 밟았다면, 이렇게 큰 걱정을 하지는 않을텐데” 그러나 그때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는 꼭 아버지와 같게 될 필요는 없어, 나는 의향적이고 박력있을 필요는 없어 나는 내자신의 훌륭한 점을 개발해야 해”

그는 머리를 숙였으며 그의 이마에서 흐르는 구슬같은 땀을 닦았다. 그러나 그의 안경에 부영계 끼는 습기는 제거할 수 없었다. 책크에게는 그의 몸을 오싹하게 하는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구두를 바닥에 대고 발가락에 힘을 주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겁에 질려 울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 안돼, 그렇게해서는 안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8분 반이 걸릴 것이다. 8분 반 동안 그는 확실히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음성은 이 8분 반 동안 한 두 번은 묵선 소리를 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울지는 말아야지...”

칼슨 자매는 지금 성찬 찬송을 지휘하고 있으며 책크는 찬송가를 펼쳐 이 찬송을 찾으려고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는 몇장 찬송인지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쳐우 색인에서 그것을 찾아냈다. 그 찬송가 제목은 “날 따르라”였다. 그는 마지막 절을 함께 불렀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다소 이상했다. 이것은 깨





꽃하고 굵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음성은 거칠고 떨렸다. “나는 자신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소리를 내지 않고 말씀을 할 수 없을까?”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해 기침을 했다. 그런 후에 그는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의 음성이 다소 깨끗해져서 안심 되었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그와 준비한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의 마음으로부터 무질서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말씀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는 몇 소절을 더 노래하고 다시 깊은 숨을 들이켰다 다시 내뿜었다.

성찬이 끝나자 잭크는 그의 부친이 몇 가지 서류를 이리저리 뒤섞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는 잭크를 바라보고 연단으로 걸어갔다. 잭크는 “드디어 뼈는 왔구나”하고 생각했다. “부친은 연사를 소개하고 있었다. 내가 첫번째 연사였다. 적어도 8분 반 내에는 나의 말씀은 끝날 것이다.”

그의 부친의 굵고 큰 목소리는 예베당을 메아리쳤다. 박력있고 힘찬 목소리였다. 회중들은 연단을 주시하고 있었다. 잠시후 잭크 밀려도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노려보는 그 연단에 서게될 것이다. 그의 가슴은 뻗뻗해오고 있었으며 가벼운 통증마저 느끼게 되었다. 심장 마비. 아마 그는 심장 마비를 느낄런지 모른다.

“나는 거기에 설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 내가 그곳에 서있는 동안 나의 다리가 떨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얼마 후에는 나는 병이 나고 말거야! 나는 아버지께 말씀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야지, 못한다고 못한다고!” 이것은 지각없는 것이었다. 그의 위대한 자기 형상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아침 그는 거울 앞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외울 수 있었다. 그는 양손을 적절히 사용하기까지 했으며 완전히 자신을 조절할 수 있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그의 부친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주연사로 에머리 부부를 초청한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 씀하라고 부탁한 것이 에머리 자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와드의 가족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생각에서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에머리 가족이 지금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잭크 이의는 모든 사람들이 꺾꺾 웃기 시작했다. 그의 부친은 그를 향하여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이제 어 린 연사인 나의 아들 잭크에게 그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으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중들은 다시 꺾꺾 웃었다. 그때 잭크는 열이 그의 머리끝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말씀에 너무나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에머리의 가족이 참석하고 있지않는 것조차 몰랐다. “8분 반이 시작 되는 구나”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저녁 와드의 몇몇 회원에게 잠시동안 말씀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하고 그의 부친은 계속했습니다. “내 아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최근에 신권에 대해 생각한 바에 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부친은 한손은 연단에 한손은 그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잭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싸매고 거 정에 싸였다. 하지만 가능할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했다. 사태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난 도저히 할 수 없어”라고 그는 자신에게 외쳤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광고를 하였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 자신의 신권의 권능을 사용하여 그것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신권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잭크는 아버지가 자기에 관해 말씀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저는 잭크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

에게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잭크는 그의 부친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말도 안하고 서 있는지 보기 위해 얼굴을 쳐들었다. 그는 그의 부친이 그의 호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어 연단을 꼭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제발 그 이야기만은 말아주세요. 그 이야기를 끝낼 수는 없지않아요”잭크는 그의 자리에서 몸을 비틀고 있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 자동차 사고가 있었을 때 그의 부친은 그를 축복했으며 이 축복으로 그는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이 이야기를 한번도 공석에서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 당시 나의 아들은 세살이었습시다. 그러나 그는 축복을 요청했습니다...” 밀러 감독의 목소리는 힘차게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휴식이 더 길었다. “여러분께서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두번이나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그는 감정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두번이나 그는 중단했다. 매번 전 보다 더 많이 쉬었다. “죄송합니다. ...저는...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부친은 이제 연단에 북북히서 있었다. 그는 음성을 조절할 수 없었다. 잭크는 그의 뒷좌석 끝에 앉아서 “나는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사라진 것 같이 잭크는 꼴꼴이 서서 연단으로 걸어갔을 때 이상하게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는 거기서 그의 아버지를 안으면서 “감독님, 저...제가 아버지 대신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놀라서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때 그의 안경 너머로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빛으로 좌석에 가서 앉았다.

그의 가족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상하게도 용기가 솟아오름을 느꼈다.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말이 막힌 것은 잭크였다. 그는 이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지혜의 말씀에 관해 말하는 것은 더이상 적당하지 않은 것같이 보였다. 그는 물몬경을 열고 그가 표시해둔 곳을 응시했다. 그때 그의 물몬경에서 그가 밀출 친 성구를 발견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니일1:1) 즉시 그는 자기가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성구를 소리내어 읽었다. 나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잭슨 자매와 웨이드 가족, 연세가 많으신 프라이스 형제 그들의 가정 복음 교사도 있었다. 거기에는 스미스 가족과 잭슨 가족도 있었으며 자신의 가족도 보였다. 어머니는 나에게 미소를 보였다. 그는 흥분이 되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들에게 그의 느낌을 말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감독인 아버지를 가졌다는데 대해 다소 언짢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잭은 말했다. “누구나 나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나 잭 밀러는 훌륭한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신권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는 나의 부친과 같은 분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활짝 웃고 계시는 그의 부친을 돌아다 보았다.

“아버지는 그의 말씀 가운데서 나와 다른 사람에 관해 말씀하셨으므로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에 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회중은 웃었으며 잭크는 그 뒤에서 웃고 계시는 아버지의 웃음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한손은 연단에, 다른 손은 호주머니에 넣고 말을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서 아름답고 미묘한 힘으로 퍼져나갔다. 성령은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으며 잭 밀러는 훌륭한 말씀을 하게 되었다. \*

# 승리와 비극

교회사 시리즈, 제3부  
1833-39년  
글렌 엠 레너드 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었던 말일성도들은 1830년대 말경과 그 시기에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반면 매우 심한 신앙의 시험을 받았다. 1836년 3월 27일 커틀랜드 신전의 헌납은 그들이 뉴욕으로부터 이주하기 5년 전에 약속된 영적인 능력인 엔다우먼트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최초의 신전을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있을 때 흑심하고 난이 오하이오주와 북부 미주우리주의 두번째 집합 장소의 교회에 엄습해 오고 있었다.

커틀랜드는 1831년의 계시에 의해서 5년 동안(교성 38 : 32 ; 64 : 21참조) 교회의 임시 본부로서 지명되었다. 교회의 회원들은 거기서 물몬의 인품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미주우리주 잭슨군 커틀랜드에서 성도들은 다른 미국 개척자 농부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미 정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땅을 매입했다. 커틀랜드에서는 성도들이 포목상과 여관 제분소와 산업 기능공을 위한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전반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이곳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은 물몬 이주자의 급속한 이주는 커틀랜드의 경계를 혼란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말일성도의 평범한 정치 활동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몇몇 물몬은 관리직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물몬은 반미적이고 비밀 독재 정부

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틀림없이 이러한 우려는 복천년 정부의 궁극적인 수립에 관한 말일성도의 신앙에서부터 나왔을 것이다. 공공 사업에 대한 그들의 참여때문에 커틀랜드의 성도들은 지오거군을 설치하기 위한 새로운 위치, 지역 절제 운동 기타 다른 문제에 관한 토론에 참여했다.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관한 관심 이외에 교회 회원들은 커틀랜드에서의 교육에 대해서도 그들의 관심을 기울였다. 1832년 12월에 기록된 “감람잎”(교성 88편)의 계시에서, 주님은 대관장단에게 신전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 후에 건립된 말일성도 신전과는 달리 이 건물은 종교적,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층 건물은 예비 선교사를 양성하며 세상적인 학문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학교였을 것이다.

예언자의 학교(또는 장로 학교라고도 불리어짐)의 종교반은 1833년 초에 시작되어 신전이 완성되기 전에 수년간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 외의 사람들은 장로를 위한 기본 교재로서 “신앙 강화”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교리상의 토론은 1835년부터 1920년까지 교리와 성약에 실려 있었다. 커틀랜드 학교라고 불리어지는 세상적인 학문을 위한 반에서는 산수, 문법, 지리, 기타 기본 과목을 가르쳤다. 1835년 히브리 특별반은 오하이오주 허드슨의 조슈어 세익서스가 가르쳤다. 1837년 가을, 신전의 헌납이 있는 후에 커틀랜드 고등학교에서는 커틀랜드 학교에서 시작된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가르쳤다.

신전은 교육 이외에 다른 역할도 맡았다. 합당한 성도들에게 신전은 그들

이 “높은 곳에서 임하는 능력”(교성 38 : 32)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성취했다. “감람산” 제시는 이 특별한 건물은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교성 88 : 119)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전을 위한 계획은 계시로서 대관장단에 주어졌다. 프레데릭 지 윌리엄스가 설계사로 일했다. 커틀랜드 신전은 외관상 대 뉴 잉글랜드 집회소와 유사하지만 이 건물에는 말일성도 건물로써 인정된 몇 가지 특징을 가미하였다. 예를 들면; 숙련된 목수가 어셈블리 룸의 양 끝에 정교한 단을 조각했는데…멜기세덱 신권을 위한 4개의 단은 서쪽 끝에 아론 신권을 위한 4개의 단은 동쪽 끝에 있었다. 이 방은 16.76×19.8미터의 방으로 숨겨진 줄과 도르래에 의하여 작동하는 장막 또는 휘장에 의하여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새로운 신전을 위한 초석은 1833년 7월 23일에 놓여졌으며 공사는 곧 시작되었다 이 공사를 돕기 위해 많은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 일은 모든 회원들의 희생과 경제적인 부담이 요구되었다. 채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석공, 목수, 가구장이, 유리 만드는 기술자, 도장공, 털실을 짜서 노동자의 옷을 만드는 여성, 그 외에 60,000불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도운 자들. 이 성스러운 건물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족들은 신전에 번쩍번쩍 빛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유리 그릇 또는 도자기를 바쳤으며 그것들은 부서져서 회반죽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1836년 3월 신전 헌납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은 커틀랜드에서의 교회 역사가 사상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것

들이었다. 헌납을 준비하기 위하여 요셉 스미스는 신권 지도자에게 받을 씻고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소개했다. 이것은 그들을 다음과 같이 하여 주님의 제명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준비를 갖추며 거룩하게 될지이다. 참으로 마음을 순결케 하고 내 앞에서 손발을 성결케 하여 내가 너희를 순결하게 할지이다…이 사악한 세대의 피로부터…”(교성 88 : 74-75) 이것은 그후 몇 년 후에 나부에서 예언자에 의해 소개된 완전한 엔다우먼트에 대한 예비 의식이었다.

3월 27일 공식 헌납식에 참석하려는 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시에 의하여 주어진 헌납 기도는 모든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 번 되풀이 되었다. 이 모임에서 윌리엄 더블류 펠프의 새로운 찬송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찬송가, 194장)이 처음으로 불리어졌다. 그 날 밤 신권회를 갖는 동안 신전은 바람과 같이 찬송으로 가득 찼으며 참석자들이 운데 몇몇 사람은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신전 밖에서 이를 목격한 자들은 돌진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신전 뽀족탑 위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았다고 했다. 회원들은 그들의 경험을 오순절날에 내려진 성령의 은사에 비유했다.

여러 날 동안의 동일한 경험의 마지막 절정은 4월 3일 일요일에 있었다. 오후 모임에서 성찬을 든 후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서쪽 설교단의 휘장을 늘어뜨렸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은밀한 장소에서 그들은 무릎 꿇고 조용한 기도를 드렸다. 이 기도를 마치고 시현이 그들에게 열려 그들은 “주께서…설교단 흥벽 위에서”(교성 110 : 2) 계시는 것을 보았다. 구세주는 신전을 받아들였으며 다른 축복도 약속하셨다. 그후 요셉과 올리버에게 3번 더 시현이

주어졌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집합의 열쇠를 주었으며, 일라이어스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음의 신권 시대”를 맡기셨으며 엘리야는 그들에게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하는 열쇠를 부여했다. (교성 110 : 12, 15)

헌납식이 있었던 그 주와 그날의 경험은 성도들이 커틀랜드를 버리고 또한 신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빼앗기고 떠났던 그날부터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오랫동안 버려진 후에 이 신전은 다시 찾게 되었으며 지금은 미주우리주 인디펜덴스에 본부를 둔 복원 교회의 집회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다.

### 커틀랜드에서의 위기

요셉 스미스를 커틀랜드에서 떠나게 한 곤경은 미주우리주 성도들은 잭슨군으로부터 1833년에 처음에는 클레이군으로 그후 다른 북부 미주우리군으로 쫓겨났던 폭력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정치적 종교적 탄압은 미주우리주와 오하이오주에도 있었으며 커틀랜드에서의 긴장은 주로 요셉 스미스의 은행 투자와 포악한 배도자들의 첩박이 주원인이 되었다.

이 시대는 커틀랜드주와 오하이오주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시기였다. 미국의 개척자에게는 돈과 신용이 고갈되어 있었다. 인구와 사업의 기회와 땅 값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었다. 말일 성도 사업가는 빚을 갚고 금전이 잘 유통되는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지폐를 발행하여 통용시키기 위해 은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1838년 11월 2일, 요셉 스미스와 그 외의 사람들은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 은행을 조직

했고 주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했다. 과거 8년 동안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400개의 새로운 은행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커틀랜드 은행의 신청서는 오하이오주의 수도인 컬럼버스에 도착했으며 반은행 운동이 있었던 후였으므로 관리는 새로운 은행 승인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물론 지원자들은 그때 화폐를 발행하고 자본을 모으기 위해 합자 회사를 설립할 것을 결의했다. 그들은 이것을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 앤더 뱅킹 컴퍼니라고 불렀으며 이미 준비된 은행권 위에 그 명칭을 거듭 인쇄하였다.

1837년 1월에 커틀랜드 지폐가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준비된 금의 한도를 넘지 않았으므로 액면대로 받아들여졌다. 주민들은 그것을 상품을 매입하고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달이 지나가기 전에 은행은 이 지폐를 금화로 교환해 주는 것을 중단했다. 금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늘어났다. 그 지역의 다른 여러 은행은 지폐는 그들이 커틀랜드 지폐를 받아들일기를 거절한 지역에서만이 교환될 수 있음을 알았다. 회사의 이러한 곤경은 미합중국이 수백 개의 은행을 폐쇄케 한 경제 공황에 들어갔을 때 배가 되었다.

요셉 스미스는 1837년 이른 여름 커틀랜드 앤더 뱅킹 컴퍼니의 지배인의 자리에서 사직했으며, 그후 몇 개월이 지나 그 회사는 영원히 폐쇄되고 말았다.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언자는 회사의 실패로 말미암아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그는 땅에 투자했으며 그의 상접을 위해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나 돈을 얻고 그의 빚을 갚기 위해 쉽게 그의 자산을 팔 수는 없었다.

그의 동료 가운데 몇몇은 요셉 스미

스의 예언자로서의 역할과 사업가로서의 역할을 분리시켜 생각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회사의 폐업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의 고결성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커틀랜드에서의 몇몇 사람들은 그를 혹평하고 교회의 대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했다. 어떤 무리는 그를 예언자로 지지하기를 반대했다. 그들의 배도는 그의 삶과 그를 지지하는 자들의 삶에 큰 위협이 되었다. 브리잡영과 그 외의 다른 몇몇 사람들은 공공연히 요셉 스미스를 옹호했으며, 자객과 고통을 피하여 커틀랜드를 떠나는 예언자를 따랐다.

이곳을 떠난 교회의 지도자는 겨울의 혹심한 추위 가운데 미주우리주로 여행했다. 그들은 1838년 이른 봄에 파웨스트에 도착했다. 그곳의 회원들은 짐승과 돈으로써 그들을 지원했다. 그해 여름 커틀랜드에 남아 있었던 충실한 회원들은 미주우리의 성도들과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칠십인의 지시에 따라 커틀랜드 진영으로 알려진 500명 이상의 무리가 짐마차를 타고 거칠은 개척자의 길을 따라 파웨스트에 가서 그후 아담 온다이 아만에 정주하게 되었다.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교회의 성장을 막지는 못했다. 미합중국의 동부 여러 곳에서 선교 사업은 번창해 갔으며 캐나다에서의 개종자는 대서양을 건너 선교 사업이 팽창하도록 인도했다. 1836년 4월 십이사도 평의회는 팔리 피프렛 장로는 캐나다에 보내져서 터론토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거기서 원래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을 찾던 잡리 교회의 목사인 존 테일러를 만났다. 3주간의 복음 공부로 마친 후 앞으로 교

회의 제3대 대관장이 될 존 테일러와 그의 아내는 침례를 받았으며, 침례받은 지 2주 내에 십이사도의 한 분으로 부름받았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새로운 회원 가운데는 영국에 많은 친척과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개종을 설명하는 편지를 썼으며 자신의 간증을 그들의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들려 주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기초 작업이 이미 완성되었다. 요셉 스미스가 커틀랜드를 떠나기 몇 개월 전에 영국 선교부를 개설하기 위하여 히버시 킴볼, 울슨 하이드, 윌라드 리차즈와 그 외의 4명의 캐나다인의 개종자를 불렀다. 그들은 1837년 7월 20일 영국 리버풀항에 도착했다.

이들 선교사는 친구들과 친척과 접촉했으며 일반적으로 영국인 가운데서 선교 사업을 행하기 시작했다. 9개월 동안의 복음 전도 후에 그들은 거의 2천 명의 개종자를 얻었으며, 대부분의 장로들은 캐나다인 조셉 필딩을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남겨 두고 영국인 개종자인 윌라드 리차즈(그 당시 사도가 아님)와 윌리엄 클레이튼을 보좌로 임명하고 그해 봄에 본국으로 돌아왔다.

### 미주우리주의 곤경

만일 요셉 스미스가 복부 미주우리주 성도 가운데서 평화를 찾기를 기대했다면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 커틀랜드에는 불화와 오해로 인해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1838년 봄에는 스테이크 부장단(데이비드 휘트머, 더블류 더블류 펄프스, 존 휘트머)에 대한 여러 가지 불충실의 비난이 있었으며, 이것들은 총회의 지지를 받아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명되었다. 이들

교회 지도자들은 그 직책에서 해임되고 그 대신 토마스 비 마쉬와 그의 두 보좌로 브리감 영과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이 부름을 받았다. 동시에 교회 재판은 몰몬경의 세 목격자 중의 두 명, 즉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를 판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배도자인 십이사도의 라이만 이 존슨도 파문당했다. 이들은 커틀랜드의 반대자들에게 호응하여 공공연히 요셉 스미스를 비난했다.

1838년 여름에는 미주우리주 사람들은 성도들에 대한 비난을 계속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집과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었다. 예언자 자신의 결정은 위협에 대하여 일어서며 필요하면 이에 맞서는 것이었다. 시

드니 리그돈은 1838년 7월4일 미국 독립 기념일에 그의 연설가운데 이 결정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해 폭도들을...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근절령이란 투쟁의 장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침략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사람의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유를 외쳐야 하며, 모든 다른 사람도 그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대학교 연구집 14 (1974년 여름) : 527페이지)

미주우리주 거주자들은 이 연설을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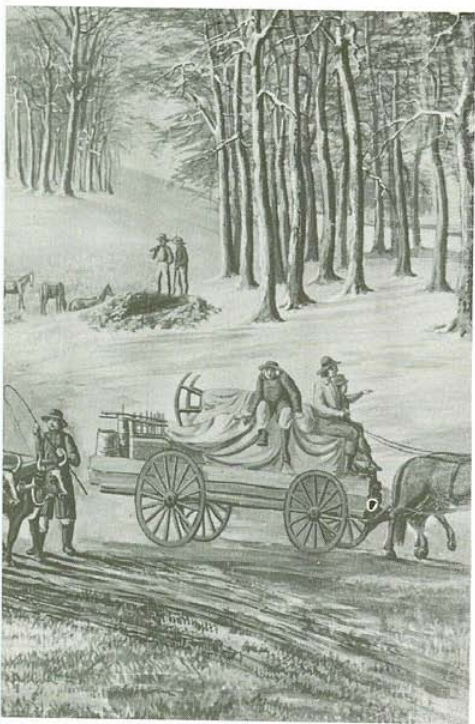
몬 “대반역”의 증거로서 생생한 수사학적인 말로 해석하려 했다. 그 결과는 “1838년의 몰몬 전쟁”으로 알려지게 된 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곤경의 시작은 데이비스군 켈라틴에 있었던 선거일에 시작되었다. 이날 한 술취한 시민이 반몰몬 후보자에게 반대 투표를 하러 온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싸움을 걸었다. 싸움에 대한 과장된 보고가 파웨스트에 전해졌다. 요셉 스미스와 그 외의 몇몇 사람들은 무장하고 그들의 형제를 구조하기 위하여 기마대를 조직했다. 그들은 아담 온다이 아만에서 라이만 화이트로부터 그들이 입은 피해는 사소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그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곧 요셉 스미스와 라이만 화이트에게 폭동

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들은 체포되어 법정에서 서게 되었다.

소문은 양편에 모두 전해졌으며, 몰몬 봉기라는 잘못된 보고가 미주우리주의 주지사 릴번 더블류 보그스에게 전해졌다. 그는 주군대에게 행동을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말일성도들은 자체 방위를 위해 콜드웰군에서 징집하였다. 케럴군에서 폭도들이 더위트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혔을 때 요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은 그 외의 어느 곳에서나 폭도들의 행동을 저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밥을 타서 나타나는 폭도들은 아담 온다이 아담 근처에 있는 집과 건초 더미를 불태웠으며, 주군대 지휘관은 라이먼 화이트에게 몰몬 군대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0월 24일 사무엘 보가트 대장 휘하의 콜드웰군 군대는 세 명의 몰몬 포로를 잡아 두고 다른 사람들은 그 주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십이사도의 일원인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 대장은 몰몬 군대의 한 작은 파견대를 데리고 포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크룩키드강 옆에 있는 보가트 진영으로 나아갔다. 이 두 대대는 육박전을 벌인 끝에 패튼과 그 외의 3사람은 사망했다.

이 사건의 과장된 보고가 보거스 지사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성도들이 마을을 불태우고 그곳 거주자들을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추방시키고 “몰몬 교도의 비밀 결사” 운동을 통하여 시민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들었다. 말일성도의 견해는 무시하고 보거스 지사는 10월 27일 주국민군의 존비 클라크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몰몬은 적으로 간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주에서 근절시





키거나 추방해야 한다. 그들의 만행은 필설로 설명할 수 없다.”(교회 정사 3 : 175)

### 박해와 추방

이 불명예스러운 “근절령”은 예상하던 결과를 가져 왔다. 10월 30일 200명 이상이나 되는 주국민군은 콜드웰군의 제이콥 하운의 제분소 근처에 살고 있는 30세대의 물몬의 정착지에서 참혹한 학살을 행했다. 그곳 이주민은 2일 전에 주국민군 지도자와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군대들은 정착지를 쳐들어와 대장간에 피신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른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17명을 살해하였다.

다음날 파웨스트 교회 지도자는 사무엘 루키스 장군을 만났을 때 그는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출했다. 손해 배상을 위해 물몬의 재산을 몰수한다. 교회 지도자는 재판과 처벌을 받기 위해 자수해야 한다. 성도들은 무장해제 해야 한다. 그들은 주국민군의 보호 아래 주를 떠나야 한다.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과 라이먼 화이트, 팔리 피프렛, 조지 더블류 로빈슨, 하이람 스미스, 아마사 라이먼은 포로로 잡혀갔으며 주국민군은 파웨스트를 약탈했다. 군법회의는 급히 개최되어 이 포로들을 다음날 총살형에 처할 것을 선고했고 루키스 사령관은 알렉산더 도니판 장군에게 그의 명령을 수행할 것을 명했다. 전에 성도들을 위해 변호사로 일했던 도니판은 다음과 같은 메모로서 이렇게 답했다. “이것은 잔인한 살인 행위입니다. 저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대는 내일 아침 8시에 리버티로 행군할 것입니다. 만일 사령관님이 이들을 처형하신다면 나는 지상의 법정

앞에서 그 책임을 당신 앞에 지우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를 도울 것입니다.” 도니판의 과감한 반항으로 그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다. (교회 정사, 1: 482)

1838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성도들은 조용히 미주우리주에 정착했으며, 그들은 결국 그곳을 떠나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수감되어 있는 요셉 스미스와 그의 보좌들과 함께 그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의 선임 사도인 브리감 영은 이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1월까지 위원회가 달구지 부대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월에 브리감 영은 그의 안전을 위해 파웨스트에 피신해 있었다.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4월말까지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미주우리주를 떠났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미시시피강 건너 서부 일리노이주 켄시에서 임시 휴게소를 발견했다. 그 나머지 성도들은 미주우리주 세인트루이스로 피난했으며, 그 외의 인근 지역으로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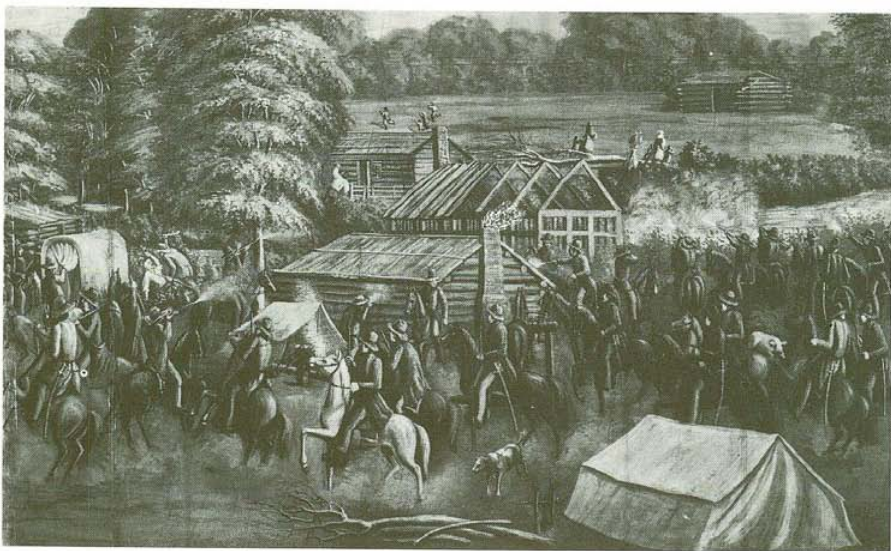
말일성도들에게 닥친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예언자와 그와 함께 체포된 자들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수감된 자들은 반역죄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 미주우리주 인디펜덴스로부터 미주우리주 리치몬드로 실려 갔다. 오스던 에이 킹에 의해 인도되는 이들을 위한 재판은 11월 13일에 열렸다. 교회의 배도자의 한 사람인 샘슨 아바드와 다른 증인이 예언자를 “물몬 교도의 비밀 결사”운동을 지휘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올바른 증언을 해줄 증인들은 구속되고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출두할 수 없었다. 판사는 결국 다음 재판이 열릴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게 했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은 리치

몬드에 수감되어 있었다.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 라이먼 와이트, 알렌산더 맥베이, 케일렘 블드윈은 클레이군에 있는 리버티 감옥으로 보내졌다.

리버티 감옥은 통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무거운 돌로 벽을 쌓은 6·7명방미터의 작은 감옥이었다. 예언자는 이 감옥에 5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 이 칙울한 감옥에서 쓴 예언자의 서한에서 놀랍게도 어두운 면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 이외에 그는 심오한 계시와 관찰한 사실을 적기도 했다. 이러한 기록에서 발췌된 내용이 교리와 성약 121, 122, 123편에 나타나 있다. 4월에 리버티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은 데이비스군에 있는 켈러틴으로 이동되었다. 그들은 두번째로 켈럼비아로 이동하는 보안관과 간수에 의해 도망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피곤한 이 수감자들은 걸기도 하며, 타기도

하여 일리노이주까지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4월 22일에 그들의 가족과 성도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리치몬드에 수감되어 있던 성도들은 또한 켈럼비아로 이동되었으며 7월 4일에 석방되었다.

미주우리주로부터의 대이동은 교회 역사상 중요한 시대의 마지막 시기이다. 오하이오주와 미주우리주에서의 수년간은 신전 건립과 교리에 대한 새로운 계시와 선교 사업의 확장, 시온의 증식되는 장소의 지명 등으로 기록할 만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 동안 재정적인 비극과 혹심한 박해와 배도, 미주우리주로부터 성도들의 추방 등에 의해 얼룩진 시기이다. 그러나 1839년이 시작될 때 교회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그러했던 것과 같이 성도들의 새로운 활력과 성장의 시기였으며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새로운 집합 장소가 세워졌다. \*



# 우리는 시온에 가기로 했습니다

질 멀베이 데어

캐롤린 반즈 크로스비는 자신과 남편 조나단이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겪었던 커다란 재정적인 어려움을 회상하면서 “컷틀랜드에서의 생활은 무척 힘들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크로스비의 가족은 여러번 다음에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할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와 같은 곤경에 처해 있는 형제들의 사랑을 시험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라고 캐롤린은 썼습니다.

그녀는 윌리엄 카혼 형제가 크로스비의 집에 들렀던 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에게 줄 옥수수 몇 리터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캐롤린과 조나단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자, 그는 옥수수를 나누어 주었고, 조나단에게 집으로 와서 감자와 고기를 가져 가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들도 크로스비의 가족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캐롤린은 “우리는 마지막 빵 한 조각까지도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캐롤린과 조나단에게는, 컷틀랜드에서 겪은 재정적인 곤란은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불화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

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대담하게도 예언자의 말씀에 반대하였습니다.”하고 캐롤린은 적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중 몇몇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친밀하게 이야기했고, 친구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라고 유감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캐롤린이 교회를 떠난 자매를 만났을때 왜 배도의 길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는 캐롤린에게 교회에서 어떤 것에 불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캐롤린은 “나는 매우 슬퍼하고 우울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교회를 떠나거나 예언자를 저버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온에 가기로 했습니다.”하고 캐롤린은 컷틀랜드로 떠나기로 한 크로스비 가족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오하이오주에서의 시련을 견디고,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그리고 유타주로 향하는 성도들의 주된 무리를 쫓아가며 계속해서 시온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타히티에서 한 동안 선교사로 봉사한 다음, 유타주 비버에 정착했습니다. 캐롤린은 일기를 조심스럽게 보관하였으며 이 기사가 들어 있는 상세하고 감동적인 개인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

# 준비와 영감



폴 에이치 던 장로

**준**비하는 태도와 준비하지 않는 태도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세 부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첫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정신적 재능과 능력이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생각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떠맡겨 버립니다. 그것은 항상 그때의 일시적 충동에 의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종종 영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주님께 그들의 모든 문제를 맡겨 버립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둘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일종의 자만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높여 주고, 훌륭한 것이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인

간에게 임하여 함께 일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주고, 높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자신이 보잘 것 없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세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매우 존중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데 주님의 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 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지도자가 봉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 들일 때 그는 자신의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로써 하나님을 돕기 위하여 부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를 만기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장기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출 34 : 28), 엘리야(왕상 19 : 8), 그리스도(마 14 : 2)는 주야로 사십일 간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24시간이면 족하고, 금식을 하게 되는 사람은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손상을 받지 않을 건강 상태와 연령에 이른 사람이어야 합니다.”(물론 교리, 276페이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서는 “주님은 합리적이고 지적인 바탕에 근거하여 이법을 제정하셨으며, 그분의 사업은 어느 하나도 헛되거나 현명치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율법은 다른 것에 서와도 같이 이 금식의 법에 있어서도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24시간 동안 음식을 전폐함으로써 금식의 법을 준수하는 문제는 절대적이거나 철칙은 아니며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해야 할 개개인 양심의 문제입니다.”(물론 교리, 277 페이지) 병약자도 있고, 건강 상태가 환경에 따라 수시로 민감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으며, 산모나 유모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금식이 요구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금식을 강요해서도 안되겠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서는 한달에 한 번씩 교회의 성찬식을 금식 모임으로 갖도록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임에서 성도들은 영의 지시에 따라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족이나 선교사 그룹이나 누구든지 필요하다면 특별한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금식을 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금식을 통해서 절약된

음식물이나 이에 해당하는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 헌납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가식적인 금식을 개탄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이 58 : 6~8)

그러므로 말일성도에게는 금식일에 자기나 가족이 하루에 소비할 식사분을 금식 현금으로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바치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식의 법을 통해서 타인에게 사랑을 주게 됩니다. 그것도 남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방법으로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온 사랑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금식을 행한 여러 가지 예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해 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축복하시기 위해 금식의 법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나 역경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경을 헤치고 나감으로써 더욱 큰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존재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적인 역경을 많이 받고 이를 극복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식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발전하고, 우리가 속한 와드 지부가 발전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시온이 크게 확대되기를 간절히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



상 : 날이 샅 무렵에 안개가 덮인 예루살렘, 하 : 예루살렘의 동산 무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미명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써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천사가... 일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마태복음 28 : 1 ~ 7)